

모든 것은 내게서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이유를 돌려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즐겁게 노력해갈 때 마술 주머니 같은 인생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내어 줄 겁니다.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임산부를 위한 요가교실’ 방문상담 서비스 실시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센터장 김희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0월 20일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위한 요가교실’을 개최하고 산모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11월 10일 ‘임산부를 위한 힐링 명상’에 MSC(mindful self compassion,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 전문 강사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원예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우울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문제를 지적하고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북부 지역의 다양한 가정들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방문 서비스와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9월1일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난임·우울증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캡슐내시경 인공지능과 능동구동의 접목,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종설, 저널 표지 장식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



소화기내과
김민지 교수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중 도메인 적용에 대한 종설을 발표하며 학계와 의료 현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교신저자인 임윤정 교수와 일저자인 김민지 전임의는 차세대 인공지능과 능동구동을 결합한 캡슐내시경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전까지 총 37편의 캡슐내시경 관련 논문을 발표해왔다. 또한, 국내외에서 교과서를 제작하는 등 캡슐내시경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그 결과물이 저널의 표지에 게재됨으로써 그 중요성을 확인받았다. 캡슐내시경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접근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단과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의료취약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 진행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10월 22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의료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는 김동일 한방 병원장을 포함한 교직원 30여 명과 쌍용 C&E 동해공장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동해시 종합기술 훈련원에서 약 250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의료진은 혈압·혈당 검사, 진료 상담(진맥), 침 치료, 맞춤형 운동 치료, 약 처방 등을 제공했고, 거동이 어려운 고령 어르신들에게는 가정방문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교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미래병원 추진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워크숍 진행

동국대학교의료원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소재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캠퍼스 교육원에서 ‘DUMC CES 프로그램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DUMC 역량 강화 세미나’ 제1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 의료원의 경영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자리로 교직원 간 소통과 실천을 강조하고 팀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생들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방법에 큰 관심을 가졌다.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호스피스의 날’ 행사 및 지역사회 강좌 진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 호스피스센터가 협력하여 지난 10월 12일 고양 시청 ‘나는 카페’에서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500여 명의 방문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매년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16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도서관에서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도연 센터장과 소행연 수간호사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향후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 인식 개선과 센터 홍보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